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제06호
2022-06
2022. 05.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HERO(심리자본) 수준은?

최조순 연구위원 (ehjs11@ggwf.or.kr)
이주영 연구원 (hisglory@ggwf.or.kr)

목차

Ⅰ. 연구 개요
Ⅱ.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 분석
Ⅲ. 청년 심리자본 증진 방향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연구진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주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3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 청년의 심리자본의 중요성

○ 청년의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최근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음

- 심리자본은 활용여부에 따라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조직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진, 사회에 있어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 대안 실현 등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기도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을 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청년의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문항을 활용함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과 대안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은 3.57점 수준이고, 심리자본 구성 요소 중 회복탄력성(M=3.2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심리자본은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월평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대상집단 설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성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 분석결과, 청년의 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희망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정책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

- 현행 경기도 청년정책으로 시행 중인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의 사업과 병행하여 청년의 삶의 개선과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 청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성향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과 자신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경기도 차원에서 심리자본을 활용한 정책개발 및 정책의 효과 검증의 기회 마련을 위한 청년 등 도민의 심리자본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Ⅰ 연구 개요

■ 사회의 양적·질적 성장 이면에 악화된 청년의 삶

○ 한국복지패널, 경기도 청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은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 청년은 상대적 소득 수준, 순자산 측면에서 빈곤의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2010년 상대적 소득빈곤은 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6.2%로 증가하였고, 순자산 빈곤 수준도 2010년 59.1%에서 2019년 65.6%수준으로 증가함(변금선 외, 2020)
  - · 이러한 청년층의 빈곤 수준의 증가는 경제적 자립 기회를 축소하고,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는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경기도청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신체·정신건강, 주거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실태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0.4% 최근 1년 내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13.6%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민효상·이성욱, 2022)
  - · 또한, 전체 응답자의 21.1%는 전세, 17.7%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35.6%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민효상·이성욱, 2022)

○ 청년이 당면한 상황 및 청년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청년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이 당면한 부정적 외부환경을 극복하고, 청년의 삶과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대안 모색은 청년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본과 사회관계와 결합되어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심리자본을 통한 대안 모색 필요

○ 청년의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최근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음

- 심리자본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몇몇 특징적인 성향을 체계화하여, '자본'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으로 희망, 자신감, 낙관성, 회복탄력성 심리발달 상태가 높은 수준을 의미함(유현숙, 2019)
- 심리자본은 활용여부에 따라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조직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진, 사회에 있어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 대안 모색 등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HERO는 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희망(Hope), 자신효능감(Efficacy), 회복탄력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의 첫 영문을 인용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청년들의 심리자본 수준을 진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내 주도적·적극적 역할 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기도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을 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청년의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 분석

1) 심리자본의 개념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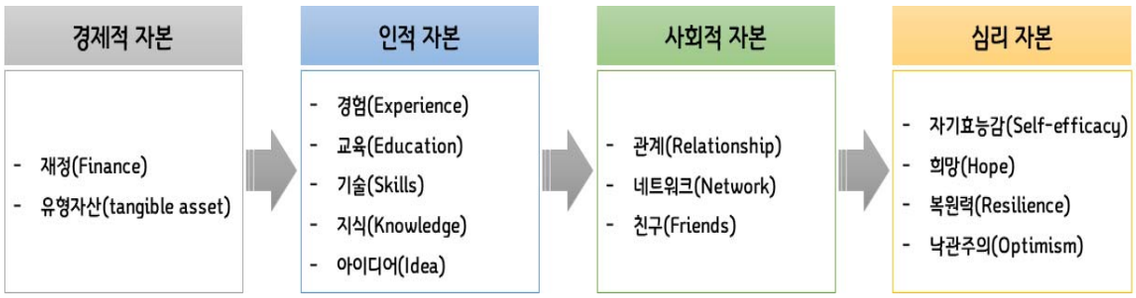
■ 시대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영역이 확장된 자본의 개념

○ 자본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기초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1]

- 과거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자본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본이 중요해지고 있음
-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본의 단위는 더 세분화되고, 자본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What you have(경제적 자본), What you know(인적 자본), Who you Know(사회적 자본), Who you are(심리자본)로 자본의 개념이 점증적으로 진화·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망, 동기, 성취감 등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확장되고 있음(Luthans et al., 2004)

1 장상진(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 자본의 개념의 변화



출처 : Luthans et al., 2004:46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심리자본

○ 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상(Who)'방점을 두고 있으나, 심리자본의 영향력은 개인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 개선까지 유인할 수 있음

- 심리자본의 구성요소는 희망(hope), 자신효능감(efficacy), 회복탄력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로 규정할 수 있으며, 약어로 'HERO'로 명명할 수 있음
  - 희망(hope)은 긍정적은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열망이 일어난 긍정적 동기의 상태를 의미하며(안유진·장형심, 2014),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인 "주도사고"와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로사고"로 구성되어 있음(Snyder et al., 1991)
  - 자신감(efficacy)은 자신의 동기, 인지 자원, 일연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신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Stajkovic & Luthans, 1998),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스스로가 조절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
  -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극복하고 본연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려는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의지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반응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임
  - 낙관성(optimism)은 성과의 원인을 쉽게 변하지 않는 포괄적 특성에서 찾고,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인 원인에서 찾는 성향을 의미함

○ 심리자본은 개인의 상황적 특성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심리자본의 긍정적 요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심리자본은 개인의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capital)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Newman et al., 2014)

- 또한, 심리자본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부정적 결과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개인의 성장에도 기여(송보라 외, 2014; Baron et al., 2013; 성문주 외, 2020)하여 개인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2)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 진단

■ 청년 심리자본 진단 개요

○ 경기도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2022년 5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약 34,000명의 선정되었으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수준, 경제관, 개인가치관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청년노동자 통장 대상자 설문조사 중 심리자본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 항목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심리자본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청년노동자통장 설문조사를 본 연구에 활용하는 이유는 ①경기도 차원의 청년대상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부재하고, ②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수준까지 분석 가능, ③만18세~만34세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 적합도가 높기 때문임

〈표 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자 현황

구분	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33,972	1,500	9,001	8,000	2,000	5,118	8,363

자료 : 경기복지재단(2022), 내부자료

○ 본 연구에서 청년의 심리자본 분석은 ①희망, ②자기효능감, ③회복탄력성, ④낙관성으로 구분하여 세부 측정도구를 도출하여 분석

- 희망은 목표를 추구하는 의지와 달성을 위한 노력하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Luthans, F. et al.(2006)에서 제시한 문항을 활용하였음. 주요 문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설정한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Luthans, F., et al.(2006)의 측정 문항을 활용함. 주요 문항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대응할 자신이 있다', '목표설정에 도움을 줄 자신이 있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Smith et al., 2008)으로 정의하였으며, Luthans, F. et al.(2006)에서 제시한 측정 문항을 활용함. 주요 문항은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관리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수월하게 수행한다'등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 낙관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특성(Carver et al., 2010; Luthans & Youssef-Morgan, 2017; 성문주 외, 2020)으로 정의하였으며, Luthans, F. et al.(2006)에서 제시한 측정 문항을 활용함. 주요 문항은 '미래에 발생할 것들에 대해 낙관적이다', '내일의 밝은 부분을 보려 노력한다', '불확실한 일을 수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표 2〉 심리자본 측정 도구 및 내용

구분	측정내용	출처	청년노동자통장 활용 설문 문항
희망	• 목표 추구 • 미래 준비 •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 Snyder et al.(1991) • Luthans et al.(2006)	•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한다. • 미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자기효능감	• 목표 달성 •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 Chen et al.(2001) • Luthans et al.(2006)	• 나는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 나는 설정된 목표를 설정하면 될 때까지 한다. •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 어려운 일에서의 회복 •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 Smith et al.(2008) • Luthans et al.(2006)	•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없다.(R) • 나는 부여받은 일에 대해서는 될 때까지 한다. •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R)
낙관성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 노력에 대한 성과 기대 •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 Chang et al.(1997) • Luthans et al.(2006)	•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나는 새로운 일에 대해 배우거나 시작하지 않으려 한다(R) • 실패는 나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다

주1) R : 부정응답으로 긍정응답으로 코딩하여 분석
자료 : 성문주 외, 2020; Luthans et al., 2006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변수별 기술통계 등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개인특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에 따른 심리자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를 활용함
  -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 방법(등분산 가정 만족하는 경우) 혹은 Games-Howell 사후검증방법(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수행함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분석은 30,092개를 최종 Data로 활용함
  -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자(1기~10기)는 총 33.,972명이나 미응답 등 데이터 결측값 제외 후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30,092개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분산분석 등을 진행함

■ 경기도 청년의 심리자본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이하 '참여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청년노동자 통장 대상자는 만18세~만34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속하는 계층이지만, 실제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은 20세 이상의 청년로 분석
  - · 청년노동자통장의 지원 조건 중 하나는 근로활동이라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실질적인 참여는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함
  - · 청년노동자통장은 만 18세~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개인적립금과 경기도 지원금을 매칭하여 약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임
- 전체 대상자 중 여성, 30세~34세 연령, 대학교를 졸업,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 300만원 청년들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 청년의 심리자본 기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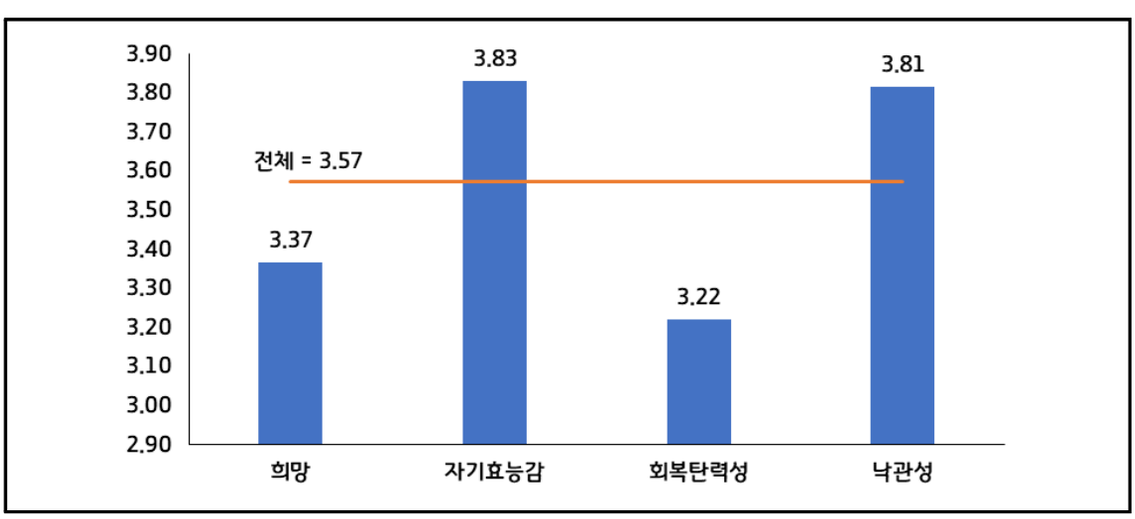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30,092	100
성별	남성	13,198	43.9
	여성	16,894	56.1
연령별	20세~24세	5,701	18.9
	25세~29세	10,766	35.8
	30세~34세	13,625	45.3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10,126	33.7
	대학교 졸업	18,965	63.0
	대학원 졸업	1,001	3.3
소득수준	월 100만원 미만	3,320	11.0
	월 100만원 ~ 200만원	10,426	34.6
	월 200만원 ~ 300만원	12,236	40.7
	월 300만원 이상	4,110	13.7

주1) 대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은 대학교 졸업으로 치환하여 활용

○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희망과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M=3.83), 낙관성(M=3.81)이 다른 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희망(M=3.37)으로 나타남. 회복탄력성(M=3.22)은 심리자본 구성 요소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변수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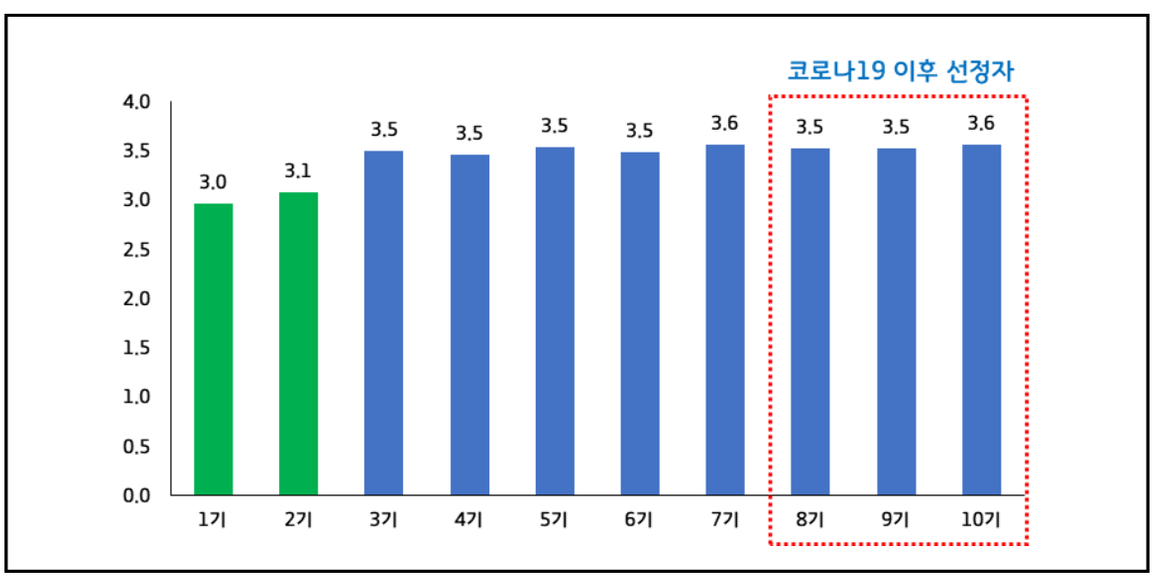
○ 청년통장 선정 기수별 심리자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결과, 기수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선정 기수별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최초 선정된 1기와 2기 청년이 심리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집된 8기, 9기, 10기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선정 기수 심리자본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선정 기수별 심리수준의 차이는 세부 측정 영역인 자기효능성,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심리자본을 진단하는 세부 영역은 일정수준의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한 방향성이 형성되고 있으나 '자기효능성', '낙관성'의 경우 코로나 19이후 선정된 8기, 9기, 10기 청년들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과 달리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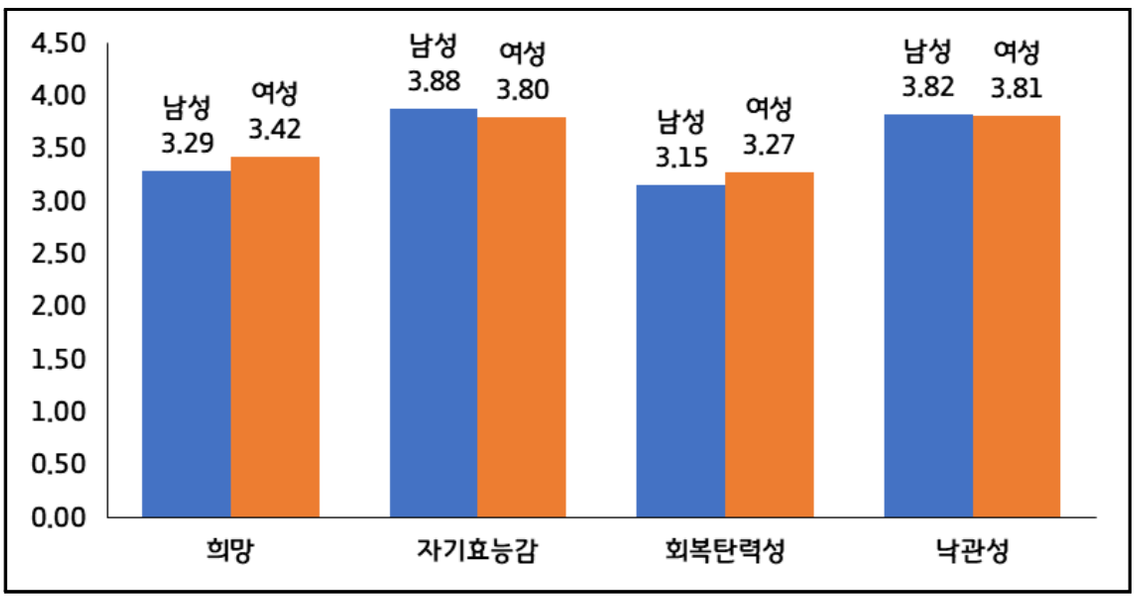
〈그림 3〉 참여 청년 기수별 심리자본 수준 변화



○ 성별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여성이,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그림 4〉 참여 청년의 성별 심리자본 수준 차이



◯ 연령별 심리자본수준 차이

- 연령별 심리자본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F=6.908, p〈0.05) 및 낙관성(F=9.207, p〈0.05)에서 연령에 따른 심리자본의 수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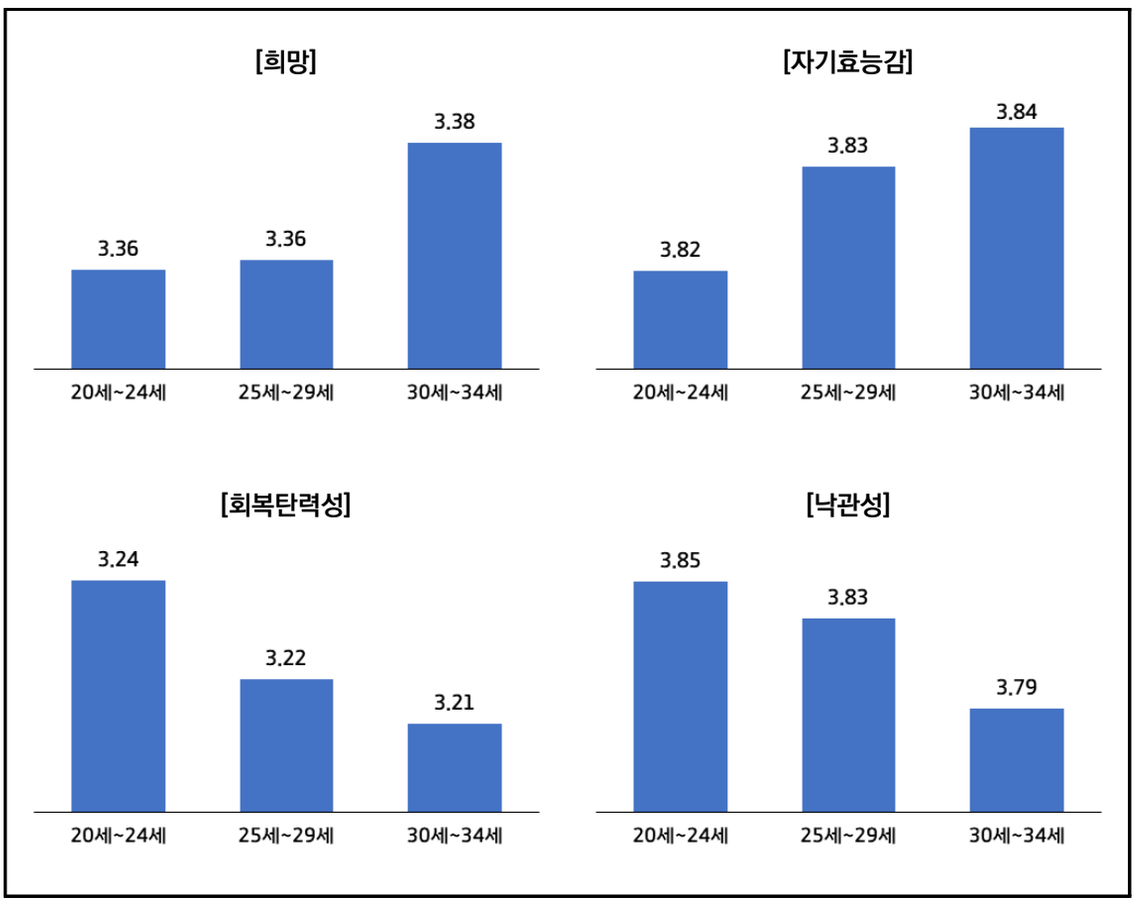
〈표 4〉 연령별 심리자본수준 분산분석 결과

구분	F	유의수준
희망	1.527	.217
자기효능감	2.112	.121
회복탄력성	12.701	.000**
낙관성	6.908	.001**

주1) ** p〈0.05

-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령별 사후검증(Scheffe 검증) 결과, 20세~24세, 낙관성은 20세~24세, 25세~29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심리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참여 청년의 연령별 심리자본 수준 차이



◯ 학력수준별 심리자본수준 차이

- 학력수준별 심리자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희망(F=6.065, p〈0.05), 회복탄력성(F=4.263, p〈0.05), 낙관성(F=4.270,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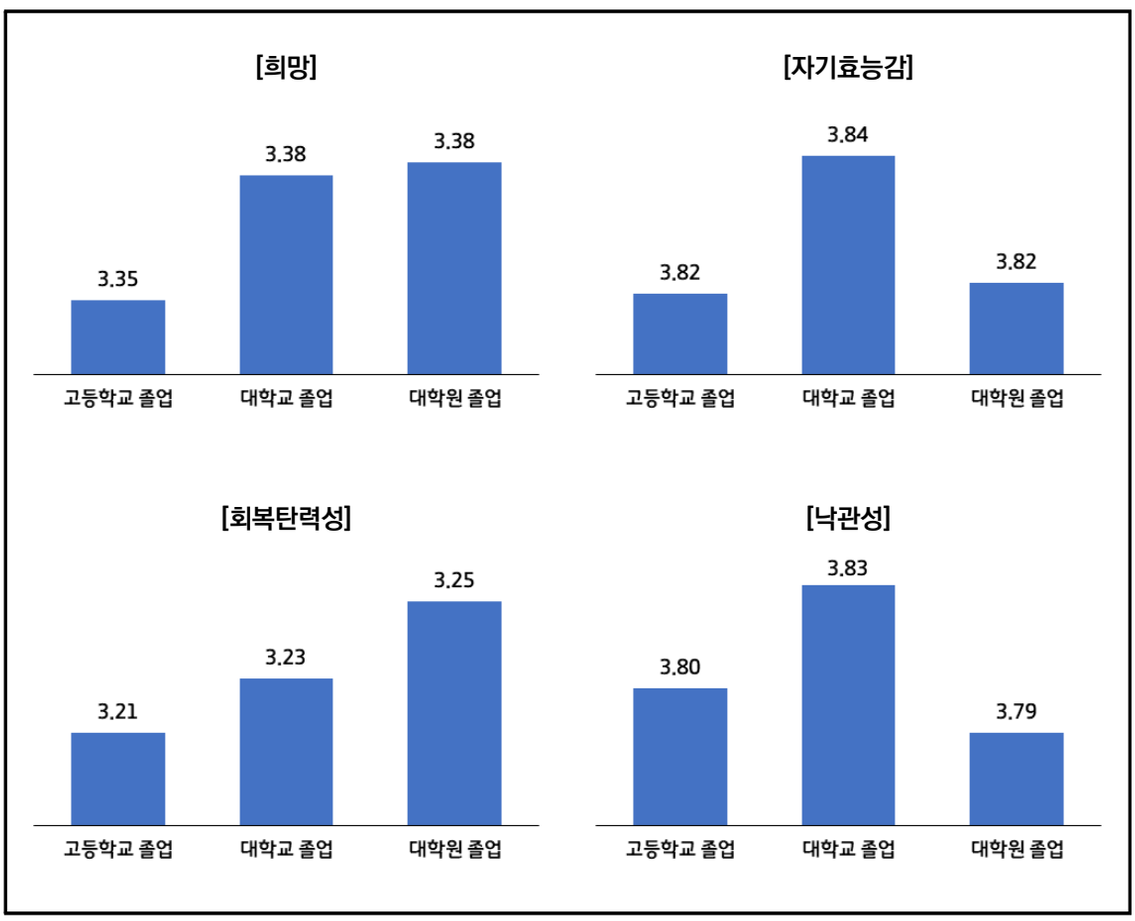
〈표 5〉 학력수준별 심리자본수준 분산분석 결과

구분	F	유의수준
희망	2.435	.088
자기효능감	6.065	.002**
회복탄력성	4.270	.014**
낙관성	4.263	.014**

주1) ** p〈0.05

- 희망과 낙관성은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연령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다만, 회복탄력성은 사후 검증(Scheffe 검증) 결과 '대학원 졸업' 학력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참여 청년의 학력수준별 심리자본 수준 차이



○ 소득수준별 심리자본 수준 차이

- 소득수준별(월평균 가구소득 세후 기준)별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희망($F=40.402$, $p<0.05$), 자기효능감($F=75.177$, $p<0.05$), 낙관성($F=175.992$, $p<0.05$)에서 심리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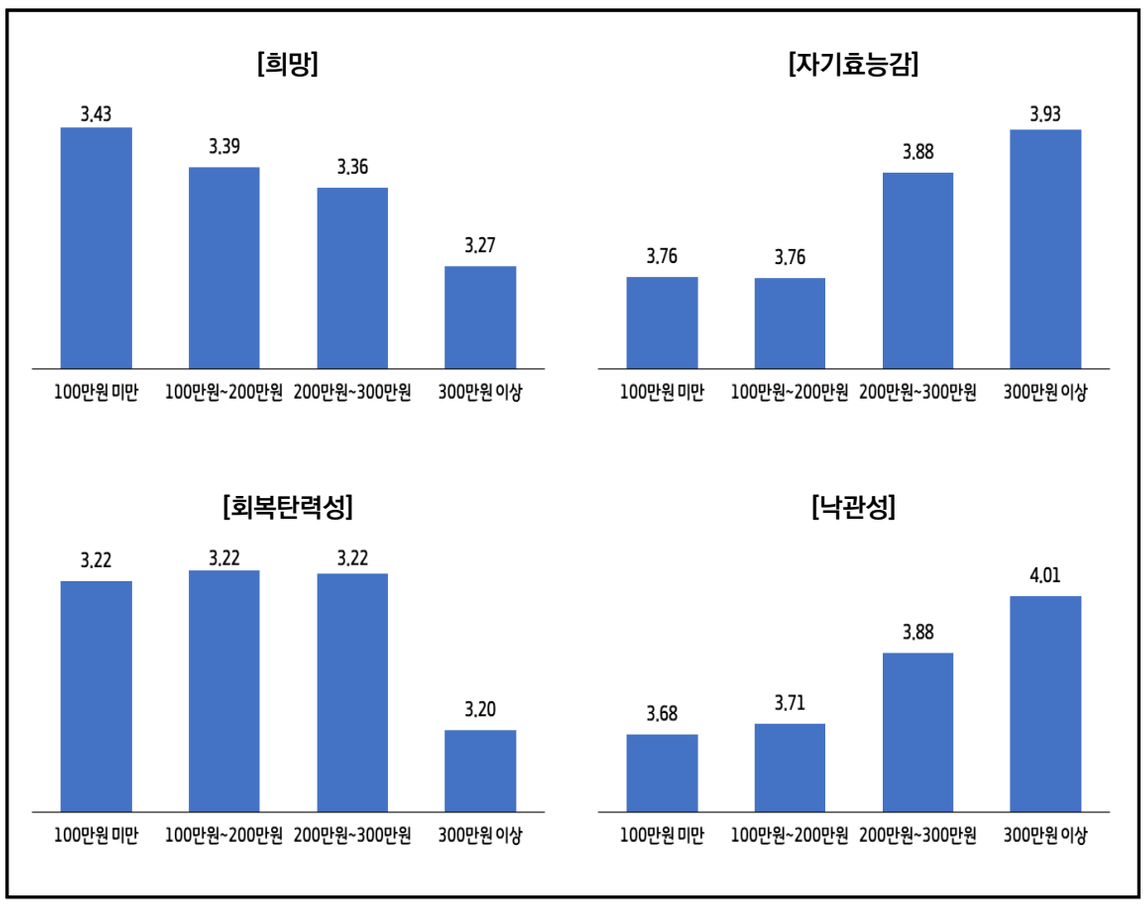
〈표 6〉 학력수준별 심리자본수준 분산분석 결과

구분	F	유의수준
희망	40.402	.000**
자기효능감	75.177	.000**
회복탄력성	175.992	.000**
낙관성	1.269	.283

주1) ** p<0.05

-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에 따라 심리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 결과(Scheffe 검증), 회복탄력성은 소득수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희망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집단이, 자기효능감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참여 청년의 소득수준별 심리자본 수준 차이



분석의 시사점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은 3.57점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심리자본 구성 요소 중 회복탄력성(M=3.2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리자본수준 선행연구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성문주 외(2020)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게 도출되었음
  - 성문주 외(2020)에서 분석된 심리자본의 수준과 본 연구에서의 심리자본수준 비교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음

<표 7>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심리자본 수준 비교

구분	성문주 외(2020)	본 연구 분석 결과
희망	4.01 / 6	3.37 / 5
자기효능감	4.13 / 6	3.83 / 5
회복탄력성	3.85 / 6	3.22 / 5
낙관성	4.12 / 6	3.81 / 5

주1) 성문주 외(2020)은 6점 만점,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을 활용함
주2) 성문주 외(2020)과 본 연구는 대상 및 표본크기, 조사시점 등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비교가 아닌 경향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활용

- 심리자본에 대한 국제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없으나,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PISA 결과를 토대로 추론은 가능함
  - OECD에서 시행하고 있는 PISA는 만 15세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며(성문주 외, 2020),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 과업 수행을 위한 자신의 믿음 수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탐색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 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수준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조성민·구남욱, 2020; 성문주 외 2020)
  - 이러한 문항을 토대로 추론할 때, 한국 청소년의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의 수준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이 20대와 30대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음(성문주 외, 2020)

〈표 8〉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구분	응답비율(%)	
	OECD 평균(%)	한국(%)
나는 어떤 일이든 그럭저럭 잘해 내는 편이다.	89	86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	86	91
나는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70	55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	71	77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잘 찾아낼 수 있다.	84	81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56	75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면, 나에게 충분한 재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스럽다.	55	66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 확신이 없어진다.	54	54

주1) 각 문항에 "동의/매우 동의"로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19)

○ 심리자본의 수준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됨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심리자본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여성이,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20세~24세, 낙관성은 20세~24세, 25세~29세가 30세~34세보다 심리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수준별 심리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별 살펴보면, 희망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자기효능감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심리자본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시 효과성이 높은 대상집단 설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의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구성 중 1차적으로 회복탄력성과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요인(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중 수준이 낮게 나타난 회복탄력성과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수준이 증진된 이후 심리자본의 구성 요소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우선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체계 정립 필요

- 심리자본수준 분석 결과, 학력수준,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심리자본구성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지원의 우선 대상자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심리자본의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우선 대상자 및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Ⅲ 청년 심리자본 증진 방향

■ 청년의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 심리자본 증진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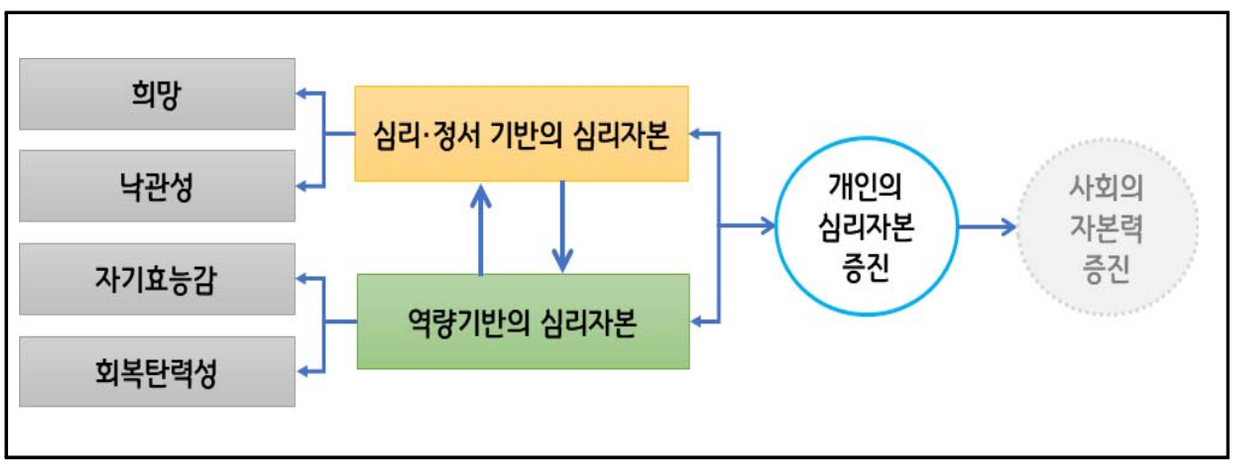
- 심리자본은 개인의 현재 심리·정서 수준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심리·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으므로 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의 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성문주 외, 2020)
- 분석 결과, 심리자본은 특정 요인이 아닌 전 영역에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심리자본 구성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구성요소가 연계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리자본증진 방안은 전 연령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심리자본 구성 요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접근방법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청년의 심리자본은 크게 심리·정서적 측면과 역량기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심리·정서 기반의 심리자본은 긍정적 자아 확립과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희망, 낙관성과 같은 심리자본의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 역량 기반의 심리자본은 자신에 대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내재역량과 관련된 자기효능성,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자본의 구성요인으로 구성됨

- 심리·정서 심리자본과 역량기반의 심리자본은 독립적인 영역이기보다는 상호 연계되는 영역이며, 각 영역 및 요소 간 연계를 통해 심리자본의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개인 변화 및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개인의 심리자본 증진은 건강한 심리상태 유지를 통해 삶의 질 제고, 개인의 긍정적 변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내 인적자본 형성 촉진 및 자본 총량을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음

〈그림 8〉 심리자본 증진 방향(안)



■ 심리·정서 상태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 도입

○ 청년의 심리·정서 기반의 심리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경기도 및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 및 심리 관련 정책(사업)은 학업 문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및 심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 당사자의 부정적 측면 및 사후적인 해결의 측면이 강하며, 사전적·예방적 측면에서의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사업)과 병행하여 청년의 삶의 개선과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
  - 청년들의 희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을 설계할 때,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사고와 경로적 사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박지영·정예슬, 2019; 성문주 외, 2020)

○ 청년의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긍정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운영

- 청년은 미래 준비에 역량이 집중되는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스스로 긍정적인 본인의 미래를 반복하여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긍정적임(McCullough et al., 2002; 성문주 외, 2020)
  - 청년 스스로 본인의 긍정적인 면을 재확인하거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자각할 때, 낙관성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McCullough et al., 2002)
- 「미래의 최고로 가능한 자기에 대한 글쓰기」 등 청년의 낙관성 증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청년공간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
  - 미래의 최고로 가능한 자기에 대한 글쓰기는 대상자가 매일 20분씩 본인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한 뒤 글을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김경애, 2019)으로 King(2009), Holmes et al.(2009), Renner et al.(2014), 김경애(2019)등 선행연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낙관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청년의 자기주도 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이 경험하는 학업·업무 스트레스, 우울, 가족·동료 등과의 대인관계 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

-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심리자본 진단 결과,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업무 스트레스, 가족 간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예방,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청년이 경험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청년공간을 활용하여 '미래 인생 설계(가칭)', '작은 성취 실현 프로그램(가칭)'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자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또한, 청년의 공간접근성으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1:1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청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등 사회활동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심리자본 향상 방안 중 하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을 통해 학습 및 모방하고, 자기역량을 증진하는 사회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성문주 외, 2020)

·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사회'라는 체계 안에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본인의 목표와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정용교,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역량기반의 심리자본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증진이 가능

- 청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심리자본을 직·간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경기청년희망모둠(가칭)', '청년실패공작소(가칭)' 등 소모임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경기청년희망모둠(가칭)'은 미래 설계 및 진로설계, 10년 후 본인의 희망사항 등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본인의 계획을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는 소모임 프로그램

· '청년실패공작소(가칭)'은 실패를 경험한 사례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본인의 실패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그룹 활동

■ 심리자본의 조사 체계 정립

○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심리자본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설계,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심리자본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지역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과 결합될 경우 긍정적 자본의 파생력은 더욱 증대되기 때문임

- 개인의 다양한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집단)의 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심리자본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지표와 실태조사 체계 정립

○ 청년실태조사에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경기도 청년의 심리자본 수준 진단 및 모니터링 진행

- 「청년기본법」,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실태조사 시 심리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및 대응 방안 수립

참고문헌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기도.

경기복지재단(2022).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운영 현황”, 내부자료.

김경애(2019). “낙관성 개입과 실행의도 형성이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Stress』 Vol. 27(1), 64-73.

민효상·이성욱(2022). 『경기도 청년실태조사 분석 연구』.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박지영·정예슬(2019). “삶의 의미 추구와 학업만족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59-187.

변금선·김승연·박민진·이혜림(2020).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성문주 외(202).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송보라·이지원·최혜승·허준경·이기학(2014). “성인의 전생애적 진로만족 연구: 생애주기별 사회인지진로변인과 삶의 만족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Vol 15(5), 1791-1810.

안유진·장형심(2014). “중학생의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 만족, 희망적 사고, 학습관여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77-106.

유현숙(2019). “심리적 자본의 성별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 9(9), 635-648.

장동호(202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상진(1995).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용교(2009). “인간존재의 이중주:개채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Vol 17(1),187-209.

조성민·구남욱(2020).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성위 및 학교풍토와 학생 웰빙 관련 결과 탐색”, 『수학교육학연구』 Vol.30(3), 465-786.

Baron, R. A., Franklin, R. J., & Hmieleski, K. M.(2013). “Why entrepreneurs often experience low, not high, levels of stress: The joint effects of selection and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Management*, 42(3), 742-768.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79-889.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Chen, G., Gully, S. M., & Eden, D.(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Holmes EA, Lang TJ, Shah DM.(2009). “Developing interpretation bias modification as a ‘cognitive vaccine’ for depressed mood: Imagining positive events makes you feel better than thinking about them verball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1): 76-88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 45-50.

Luthans, F., Avolio, B. J., Walumbwa, F. O., & Li, W.(2005).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nese workers: Exploring the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 249-271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Norman, S. M., & Combs, G. M. (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toward a micro-interven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7, 387-393.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 Peterson, S. J.(2010).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 41-67.

Luthans, F., & Youssef-Morgan, C. M. (2017).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339-366.

King LA.(2001). "The Health Benefits of Writing about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798-807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Newman, A., Ucbasaran, D., Zhu, F. E. I., & Hirst, G.(2014). "Psychological capit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S1), S120-S138.

OECD(2019).『PISA 2018 Results(Volume Ⅲ):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 lives』. OECD.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Prati, G., & Pietrantoni, L. (2009). "Optimism, socials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4, 364-388.

Renner F, Schwarz P, Peters ML et al.(2014). "Effects of a best-possible-self mental imagery exercise on mood and dysfunctional attitudes". *Psychiatry Research*. 215(1): 105-110.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B. W., Dalen, J., Wiggins, K., Tooley, E., Christopher, P., & Bernard. J.(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194-200.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 Harney, P., et al.(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 240-261.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6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 청년의 HERO(심리자본) 수준은?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남윤수 대표이사 권한대행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현장공감
복지재단

06
9 772713 985004
ISSN 2713-9859